



▲콜롬비아 '로드리게스'
▲브라질 '네이마르'

브라질 vs 콜롬비아

2014 브라질 월드컵 8강 대진



2014 브라질 월드컵 우승을 향한 경쟁이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의 싸움으로 좁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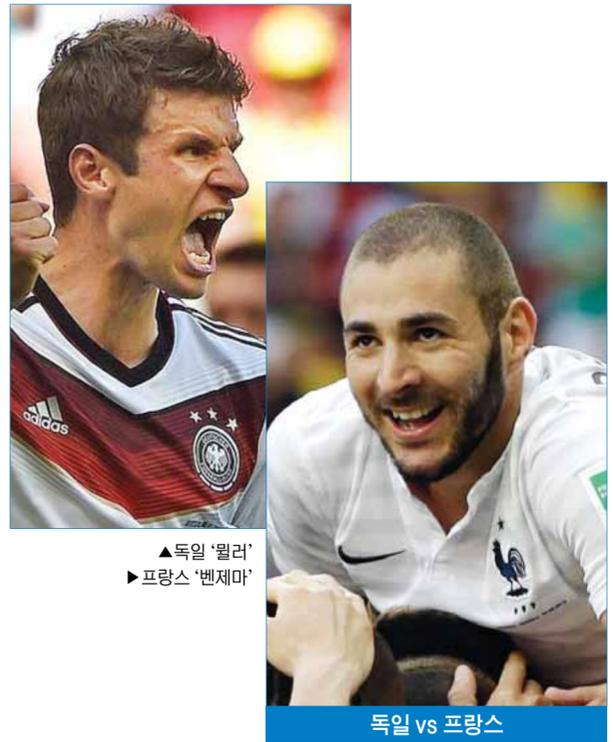
2일(한국시간)까지 열린 대회 16강전 결과 유럽에서 프랑스·독일·벨기에·네덜란드 등 4팀이 살아남았고, 남미 국가로는 개최국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콜롬비아가 8강에 진출했다. 북중미에서는 유일하게 코스타리카가 16강을 통과했다.

16강까지는 아프리카팀인 알제리와 나이지리아가 남아 있었으나 두 팀 모두 탈락하면서 유럽과 중남미 국가가 8강을 형성했다.

8강전 첫 날인 5일에는 같은 대륙 안의 라이벌끼리 대결이 성사돼 관심을 끈다.

'아트 사커' 프랑스와 '전차 군단' 독일의 8강 첫 경기는 유럽 축구의 위상을 대표하는 나라의 격투이다.

대회 전부터 우승 후보군에 포함된 두 팀은 조 1위로 조별리그를 통과했으나 16강전에서는 시원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프랑스는 나이지리아를 상대로 후반 34분까지 골을 터뜨리지 못하다가 폴 포그바(유벤투스)의 결승골과 상대 자책골이 터지면서 2ph0으로 승리했다.



▲독일 '뮐러'
▲프랑스 '벤제마'

독일 vs 프랑스

중남미 4 vs 유럽 4... 이제부터 '별들의 전쟁'



▲네덜란드 '로빈'
▼코스타리카 '캠벨'

네덜란드 vs 코스타리카

조 1위 총출동 8강 대진표 확정...5일 첫 경기

새벽 1시 프랑스-독일, 5시 브라질-콜롬비아

독일은 상대적인 약체로 평가했던 알제리와 90분간 득점 없이 맞선 채 연장전까지 간 끝에 2-1로 진땀을 겨워 이기고도 좋은 평가를 듣지 못했다.

역대 맞대결에서는 프랑스가 독일에 11승6무8패로 우세를 보이나, 월드컵 본선에서는 3차례 맞붙어 1승1무1패의 호적세를 보였다.

같은 날 포르투갈에서는 통산 6번째 우승을 노리는 '삼바 군단' 브라질이 '화력의 팀'으로 떠오른 콜롬비아를 상대한다. 특히 대회 전부터 강력한 득점왕 후보로 꼽힌 네이마르(브라질·FC바르셀로나)와 '깜짝 스타'로 급부상한 하메스 로드리게스(콜롬비아·AS모나코)의 발끝에 시선이 쏠린다. 로드리게스는 16강전까지 이번 대회 5골을 터뜨려 내로라하는 골잡이들을 제치고 득점 선두로 나선 가운데 네이마르와 맞대결에 나선다.

6일에는 각기 다른 대륙의 팀이 자존심을 걸고 대결한다.

메시를 위시해 8강 무대를 밟은 아르헨티나는 에당 아자르(첼시)가 버틴 유럽의 신흥 강호 벨기에와 만났다. 두 팀은 16강전에서 나란히 연장 혈투 끝에 어렵사리 8강에 올라 남은 기간 회복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아리언 로빈(바이에른 뮌헨), 로빈 판 페르시(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막강 공격진을 보유한 네덜란드는 이번 대회 '돌풍'의 주인공인 코스타리카와 상대한다.

'죽음의 조'로 불린 D조에서 우루과이, 이탈리아, 잉글랜드를 제치고 1위로 조별리그를 통과한 코스타리카는 그리스를 승부차기에서 따돌려 사상 최초로 8강에 진출했고, 이번에는 네덜란드를 상대로 또 하나의 이변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르헨티나 '메시'
▼벨기에 '아자르'

아르헨티나 vs 벨기에

'4골' 메시, '5골' 로드리게스 맹추격

뮐러·네이마르 등 7명 '득점왕' 경쟁 점입가경

반환점을 둔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본선에서 득점왕 트로피 골든부트의 향배는 아직 오리무중이다.

16강전까지 선수당 최대 4경기씩을 소화한 가운데 득점왕 가능성이 엿보이는 출전자는 7명으로 압축됐다.

콜롬비아의 공격수 하메스 로드리게스(AS모나코)가 4경기 309분 동안 5골, 2어시스트를 올려 선두를 달리고 있다. 독일 토마스 뮐러(바이에른 뮌헨)는 4경기 382분 동안 4골, 2어시스트를 기록, 선두를 바짝 추격하고 있다. 세계 최고의 골잡이 아르헨티나 리오넬 메시(바르셀로나)는 4경기 363분 동안 4골, 1어시스트로 3위.

개최국이 자랑하는 대형 골잡이 네이마르(바르셀로나)도 4경기 369분 동안 4골(어시스트)을 넣어 선두권을 유지하

고 있다. 프랑스의 카림 벤제마(레알 마드리드), 네덜란드 아리언 로빈(바이에른 뮌헨), 로빈 판 페르시(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3골씩을 넣었다.

콜롬비아의 로드리게스와 브라질의 네이마르, 독일의 뮐러와 프랑스의 벤제마는 4강 출전권을 놓고 사활을 건 맞대결을 치른다. 네덜란드의 로빈, 판 페르시는 많은 활동량을 앞세워 그물 같은 수비 조직력으로 공격수들을 봉쇄하는 코스타리카에 득점표를 겨눴다. 아르헨티나의 메시는 젊고 호화로운 군단 벨기에를 상대로 '신계'(神界)의 화력을 준비하고 있다.

가장 꾸준한 득점력을 선보인 공격수는 로드리게스였다. 그는 그리스, 코트디부아르, 일본과의 조별리그 3경기에서 1골씩을 넣었고 우루과이와의 16강전에서

2골을 몰아쳤다. 메시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이란전에서 1골, 나이지리아전에서 2골씩을 터뜨려 조별리그 3경기에서 모두 골 맛을 봤다. 스위스와 16강전에서는 결승골을 어시스트했다.

몰아치기로 주목된 이들은 뮐러와 벤제마. 뮐러는 포르투갈과 1차전에서 3골을 터뜨리고 미국과 3차전에서 1골을 보냈다. 가나와 2차전, 알제리와 16강전에서는 도움 1개씩을 기록했다. 벤제마는 온두라스와 1차전에서 2골, 스위스와 2차전에서 1골, 2도움을 기록했으나 에콰도르와 3차전, 나이지리아와 16강전에서 침묵했다.

골든부트 경쟁에서 득점이 같으면 더 많은 어시스트를 올린 선수가 이기고 이도 같으면 출전시간이 적은 선수가 우위에 선다. 뮐러는 2010년 남아공 월드컵 본선에서 5골을 터뜨리고 골든부트를 안아 2연패에 도전한다. /연합뉴스

브라질 월드컵은 '기록 보따리'

브라질 월드컵은 역대 월드컵 가운데 가장 흥미진진한 대회로 평가받는다. 아울러 각종 진기록이 쏟아져 축구팬들에게 큰 흥미를 안겨주고 있다.

영국 BBC 방송은 16강 경기가 모두 마무리된 2일(한국시간) 인터넷판에서 브라질 월드컵 진기록 '톱5'를 정리해 발표했다.

이번 월드컵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신기원을 열었다.

브라질의 승리로 끝난 칠레와의 16강전에서는 트윗량이 사상 최대인 1640만 건에 달했다. 운명의 승부차기에서 2-2로 맞선 상황에서 칠레의 골살로 하라의 슈팅이 골대를 맞고 나오는 순간에는 분당 38만 8985건의 트윗이 발생했다.

이 수치는 올해 미국프로풋볼(NFL) 최정상을 가리는 슈퍼볼(38만2000건), 2012년 미국 대선(32만7452건)을 넘어서는 역대 최대 기록이다.

페이스북도 '상호작용'이 10억 건을 돌파했다. 페이스북 10년 역사상 '상호작용'이 10억 건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이번 대회 조별리그에서 기록된 136골은 역대 월드컵 최다 골 기록이다. 종전 조별리그 최다 골 기록은 2002 한·일 월드컵에서의 130골이다.

이와 함께 43세의 콜롬비아 골키퍼 파파스톤 파스타토폴로스(파파스토폴로스)는 1994년 미국 대회에서 42세 39일의 나이로 경기를 뒀 카메룬의 로저 밀라를 밀어내고 최고령 선수로 됐다.

그리스는 비록 16강전에서 코스타리카에 패해 고배를 마셨지만, 이번 대회에 진귀한 기록을 하나 남겼다. 극적인 동점골을 터뜨린 소크라티스 파파스타토폴로스(Papastathopoulos)가 그 주인공이다. 그의 성은 이번 월드컵에 출전한 선수 가운데 가장 길다. 반면 브라질의 스타라이

- ▲브라질-칠레 16강전 트윗 1640만건
- ▲페이스북 상호작용 10억건 돌파
- ▲조별리그 136골 기록 '역대 최다'
- ▲43세 콜롬비아 골키퍼 최고령 선수
- ▲그리스 소크라티스 파파스타토폴로스, 가장 긴 이름

커 조(Jo)는 가장 짧은 이름으로 기록에 남게 됐다.

가나의 골잡이 아사모아 잔은 월드컵 통산 6호 골을 넣으며 로저 밀러(5골)를 제치고 아프리카 선수 최다 득점자로 올라섰다. /연합뉴스

월드컵 스코어 보드 (16강전)

| | | | |
|-------|-----|-----|---|
| 아르헨티나 | 1:0 | 스위스 | + |
| 벨기에 | 2:1 | 미국 | + |